

불교소설 출간 봇물 수행서 인기 계속

지난 2006년 한해는 지속되는 불황 속에 출판계에서도 빈약된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다. 연간 도서매출량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대형 출판사들이 속속 등장한 반면, 일부 불교계 출판사들은 1년에 2~3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버텼다. 2006년 새해 불교출판계 화두 역시 '장기화된 불황을 어떻게 타개하느냐'로 모아진다. 올해 불교출판계 전망과 주목해야 할 출판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2006년 불교출판계 전망

● 불교 인물 다룬 소설 잇따라

2005년에는 <마라나타>(화남)와 <청화 큰스님>(렘뎃하수스증양) 등 몇몇 권을 제외하면 '불교소설'이라고 할 만한 작품이 거의 출간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2006년에는 불교적 소재를 다룬 굵직한 소설이 속속 선보일 예정이다.

소설 <초의>로 평단과 독자의 호응을 한 번에 받았던 소설가 한승원씨는 이번엔 '원효 스님'에 도전한다. '원효'라는 이름에 가려져 제대로 고찰되지 못했던 원효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3권의 소설에 녹일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이 소설에 매진해 온 한씨는 특히 전쟁을 통한 삼국통일 대신 불교 사상을 통한 '불국토 통일'을 역설했던 스님의 모습도 조망할 예정이다.

지난해 성철 스님의 발자취를 짚어본 에세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를 펴낸 소설가 정찬주씨는 부산 영광도서 홈페이지(www.ykbook.com)에 연재했던 경북 스님 일대기 '맛들어지게 살아라'를 책으로 묶어낼 계획이다. 경북 스님은 근현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고승으로, 정씨는 3년간 경북 스님 발자취를 좇아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 등

의 수행처를 직접 답사하며 총 44회에 걸친 연재를 마무리했다. <만다라>의 작가 김성동씨는 다양한 작품을 집필 중이다. 2002년부터 구상하고 있는 '신돈' '묘청' '공예'를 다룬 3부작 역사 소설을 비롯해, 산을 오르다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오는 가솔한 사내의 이야기를 그린 중편 <산>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산>은 산을 오르는 여정과 진정한 자아를 찾아 떠나는 삶의 여정을 통해 '돌고 도는 세상'을 우회적으로

일 <간화선 입문서>(가제)와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을 쉽게 소개하는 '수행법 시리즈' 중 <집 수행>(가제)을 1월 중으로 펴낸다.

민족사는 '선종 제일의 책'이라 불리는 <백암록>을 완역해 펴낸다. 지전 스님이 번역을 맡았으며, 본문만 4권 분량이다. 350페이지 가량의 <백암록 사진>도 따로 발간한다. <백암록>은 선종 공안집의 하나로, 설두종현 스님이 선사들의 화두 100개를 골라 송(頌)을 붙인 것

'경전 독후감 공모' 등 불서읽는 문화만들기 내실화 사찰 도서관 건립운동 추진 등 불황타개 힘 모을 듯

보여주는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2년 남양주 봉선사에서 작업하던 중 뜻밖의 수재로 휩쓸려 간 1200여 분량의 <마하신돈>도 말치 않은 시간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행서 인기 여전할 듯

'수행서' 발간 열풍은 올해 역시 불교출판계의 중요 흐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계종출판사는 재가자를 위해 마련된 '간화선 체험프로그램'의 교재로 쓰

('설두 송교')에다, 원오극근 스님이 수시와 작어, 평창을 달아 만든 책이다. 운주사는 인도의 대승불교의 고승인 용수보살이 저술한 <대지도론>을 10권으로 번역해 펴내는 대작을 준비 중이다. <대지도론>은 <대품판야경(大品般若經)>의 주석서로, 대승불교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폭넓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여시아문은 대원 스님(공주 학림 사 오동선원 조실)이 무구자 스님의 <반



올해 불교출판계는 불교적 소재의 소설과 수행서 발간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지난해 5월 개최한 '전국불서전시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야심경) 해석을 쉬운 우리말로 풀이한 <반야심경 주해>를 1월 중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 불교출판문화협회 활동 본격화

불교출판문화협회 회장 원택, 이하 불출협)는 올해 더욱 내실있는 활동으로 '불서 읽는 문화' 고취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초과일을 기해 조계사 인근에 장소를 마련해 '불서전시회'를 개최하고, 5월 열리는 서울북페어에도 참가해 불서 알리기에 나선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올해의 불서 10' 선정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불자 독서운동 활성화 방안으로 '경전 독후감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불출협 윤창화 부회장은 "교구별 사찰 중심으로 한 '사찰도서관 건립 추진운동' 등의 자체 사업 계획은 1월 중 이사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큰 이슈 '도서정가제'

불교계 뿐만 아니라 올해 출판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사항은 '도서정

가제'가 될 전망이다. 발행된 지 1년 이 내인 책에만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고, 인터넷 서점에는 예외적으로 할인판매를 허용하는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영구적인 완전정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인터넷 서점과 시민단체들은 "완전정가제 시행으로 동네서점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반면,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완전정가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중소 서점이 무너지고 출판 유통시장이 붕괴된다"며 조속한 완전정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영구적 도서정가제에 대해 불교계 출판사들은 "완전정가제는 메이저 출판사나 대형 서점에만 유리한 정책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찰에서 불구점(佛具店)과 함께 운영하는 서점 코너 외에는 이렇다 할

'불교서점'이 없는 상황에서 도서정가제가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도서비가 높아지고 출판사측에서는 마진율이 낮아질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승산 스님이 풀어 준 100가지 옛 공안

해외포교에 매진했던 승산 스님(사진)의 입적 1주기를 맞아 1965년 출간했던 <도화집(道話集)>이 새롭게 출간됐다. 승산 스님의 첫 저서였던 <도화집>은 옛 선사들이 들었던 1700공안 중 스님이 직접 고른 100개의 공안을 풀이한 책이다.

승산 스님은 지난해 2월 이 책의 재출간 서문에서 "생사 없는 대자유인의 참된 모습과 생활을 통해 우리들 말세중생들의 규범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65년 책이 처음 출간됐을 당시 청담 스님 역시 "옛 선인



(禪人)의 생활과 행적·규범·인생·생사를 쉽게 엮은 <도화집>은 도인(道人)의 역사이지만, 우리들 생활인의 이정표이기도 하다"며 "공안을 우리말로 쉽고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화두를 모르는 사람도 능히 삼매(三昧)에 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추천사를 썼다.

조주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나'는 제자의 질문에 '무(無)'라고 답한 '무자화두(無字話頭)'를 풀이한 승산 스님의 설명을 들어보자.

"이 무자를 긍정했는가? 부정했는가? 만약 여기에서 일전(一轉)을 돌아 본다면 부처의 진면목을 얻을 것이며, 부처의 진면목을 얻는다면 또한 조주의 진면목을 볼 것이며, 조주의 진면목을 보면 바로 그것이 자기의 본래진면목을 깨달을 것이다. 문자에 걸리지 말고 오로지 무로 말미암아 일어난 의심 덩어리를 그대로 환결같이 풀고 나아가 따름이지 만일 언언문자에 걸려서 사랑분별심을 일으킨다면 상신실명(喪身失明)할 것은 물론이요, 세세생생에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밖에도 '문답무용(問答無用)' '일심적정(一心寂靜)' '남전참묘(南泉斬貓)' '호자무수(胡子無鬚)' 등 유명한 선사들의 공안을 풀이했다. 각 항목에는 '용어해설'을 두어 '이심전심' '결집' '무상삼매' 등 불교용어를 정리해 이해를 돕는다.



승산행원 도화집(道話集)
승산 스님 저음
홍법원 | 221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부부 여행작가의 네팔이야기

여성지와 일간지 기자로 일하던 최미선·신석교 부부가 2003년 동시에 사표를 던졌다. 이들이 '안정적인 직장' 대신 선택한 것은 바로 여행. 1년 동안 국내 곳곳을 여행하며 아내는 글을, 남편은 사진을 찍어 신년 지면에 소개하던 이들은 2004년 12월 네팔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다. '만년설에 뒤덮인 히말라야'를 찾아 떠난 것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떠난 이 여행에서 부부는 안나푸르나 트레킹과 치트완 국립공원의 정글 체험, 사원 순례 등을 통해 네팔의 '자연'과 '사람'을 만난다. 히말

라야와 정글 등의 자연에서 느끼는 감회도 새롭지만, 그보다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이들과의 부대끼에서 오는 소소한 감동이 더 깊게 다가온다. 또한 보름간의 짧은 일정 동안 알뜰히 네팔 곳곳을 찾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려 했던 노력도 느껴진다.

풍부한 사진과 착실한 여행기록으로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일게 만드는 것이 이 책의 미덕임에 반해, 실질적인 여행정보나 '네팔'이란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수령 기자**



네팔여행
최미선 글
신석교 사진
안그라픽스
1만3천원



네팔을 위한
어제와 오늘
김성철 사진집
두르가
3만8천원

양심수 50인의 어제 그리고 오늘

양심수(良心囚).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도덕적 확신을 결정한 동기로 하는 범죄를 행하여 투옥·구금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양심수는 85명에 달한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인사동 학교재에서 양심수 50인의 어제와 오늘의 사진들을 함께 전시하는 '제1회 국제엠네스티 한국의 양심수 사진전'을 열고 그 사진을 책으로 묶은 <내일을 위한 어제와 오늘>을 펴냈다. 과거의 사진은 신문사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등의 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대여 받은 것이고, 새로운 사진들은 사진작가 김성철씨가 8개월 전부터 일일이 이들을 찾아다니며 찍었다.

1989년 남북작가회담 대표로 구속돼 92년 특별사면된 시인 고은,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연)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불교계 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진관 스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로 방북한 후 구속됐던 문규현 신부 등 국제엠네스티에서 지정한 한국의 양심수 50인의 얼굴이 흑백사진으로 담겨 있다.

"추위사냥" 최고 80°C까지 온몸을 훈온하게!!!

"장삼안에 조끼형으로 입으시면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LG 리튬이온 배터리 채택, 새벽부터 밤까지 20시간 지속 사용"
"이제 더 이상 조끼위에 덧입지 마십시오. 리오이태리 발열전퍼 하나면 끝입니다"



발열전퍼 (ASB)의 효과
1. 4 in one system 접미 한 발로 4벌의 효과를 ~ 1척나중의 효과
(1) 발열전퍼에서 팔을 떼어내면
(2) 발열전퍼, 발열판과 배터리를 빼면 볼. 가을 간절기에 입을 수 있는 (3) 레저용 패딩 점퍼,
(4) 레저용 패딩 조끼

2. 특히 받은 0.6mm 초박형 탄소 섬유질 발열체 채택으로, 더욱 가볍고 안전하며, 몸에 좋은 원적외선이 풍부하게 방사됩니다.

3. 레포츠 전문 브랜드 "Rio Italy"에서 패션과 기능성을 고려 마지막 한뼘까지 간간하게 만들었습니다.

- (1) 보온성 강화를 위해 활동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인체곡선을 따라 최대한 밀착되게 디자인 되었고
- (2) 밑단과 허리조임근 부착으로 보온성이 더욱 강화 되었고
- (3) 단추와 시접 부분을 2중 박음질하여 더욱 튼튼하고, 잠금 장치 부착 고급형 지퍼를 채택했고
- (4) 목부분 니트조직처리로 더욱 쾌적한 착용감을 강화했고,
- (5) 가슴자수 로고와 지퍼, 단추부분 하나하나까지 깃스런 "Rio Italy" 로고처리를 했습니다.

4. 방수, 발수, 방풍 최고급 기능성 원단으로 만들었습니다.
5. 마지막 실오라기 하나까지 100% 국산입니다.

* 스님을 위한 특별 공급가 **168,000원** → **138,000원**
[소비자가격]

080-556-5050 / 02)2615-5709 (특판상담)
(주)씨엔비마스터

과학강국 러시아 보온갈창 '마하까레' 화제

사계절 30~34°C 유지, 겨울 보온, 여름 쾌적 발냄새 제거, 4mm 두께 엠보싱 처리, 지압효과



과학강국 러시아의 최대연구소에서 개발한 보온발취 감성 마하까레가 화제다. 러시아에서 원자폭으로 수입되는 이 제품은 러시아와 세계특허를 획득한 마하(MAHO)에 의해 이용 가능성 광창. 미래측에는 수분과 반응하여 영상 30~34°C를 유지하는 원리다. 겨울에는 따뜻한 고 열에는 체온보다 낮아 시원함을 느끼게 해 사계절 사용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 보건부에 서는 인체에 무해한 사실을 입증했다.

구슬 형태의 마하측에는 마이크로 사이즈의 구멍이 수천개 뚫려 있어 표면적을 수만, 수만에 확대하는 효과를 낸다. 이 대장관의 표면적에서 발에서 자연스레 발생되는 열의 수분과 반응하여 발냄새 효과를 낸다. 4mm 두께의 마하측에 엠보싱 처리된 보드라운 면이 감촉이 있어 자압효과도 뛰어나다. 특히 마하측에는 냄새와 습기를 자동정화 배출하므로 세탁이 필요 없다. 땀에 과도하게 젖었다고 판단 될 때는 햇볕이나 리치에터 같은 따뜻한 곳에서 건조시키면 기능이 곧 돌아온다. 판매가는 1쪽 2만9800원, 2쪽은 1만원 할인, 4만9000원이다. 2쪽을 구입, 번갈아 신으면 효과는 배가 된다.

080-556-5050 / 02)2615-5709 (특판상담)
(주)씨엔비마스터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견견 상담 환영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중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병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까지 간성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랑을 놀라게 하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어다 보인다고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이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오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